

지역축제,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강화

< 통계정보센터, 2012.04.04 >

1

지역축제 급증에 따른 축제간 양극화 현상

□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지역축제 수 35.3% 증가

-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전국 각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자 지역축제를 열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었으며, 방안 중 가장 많이 택한 사례가 바로 축제임
- 지방이 수도와 대도시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축제이며, 축제는 한 도시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바꿀 수 있는 요소이자 한 도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임
- 2006년 지역축제는 1,154개가 개최되었으며, 최근 경기 위축으로 2010년 823개, 올해는 763개가 개최될 예정이며,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축제도 무려 9개에서 3개로 대폭 줄어들 정도로 축제의 소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음
 - 2005년 이후 5년간 지역축제의 수는 전체적으로 35.3%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증가하는 지역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전북, 경남의 8곳임
 - 광역자치단체 전체로는 광역도가 많은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남이 13.8%에 해당하는 112개, 강원과 경기도가 11.4%인 93개를 개최하였음

□ 무분별 축제 기획 및 개최로 축제들 간의 양극화 현상 발생

- 지역축제들의 흐름과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질적, 양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점차 축제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엄청난 예산,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조직력이 뒷받침되는 주목 받는 축제들이 있는 반면에 적은 예산과 낮은 인지도, 변별력 없는 프로그램과 허술한 운영으로 개최되고 있는 축제들도 다수임
 - 타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기획하여 성공하면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같은 주제를 기획하여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결국 지역의 특색이 없어지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음
- 최근 지자체는 낭비성 축제가 국가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그것이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로 유사한 축제 통폐합, 특색없는 행사성 축제 폐지를 추진하는 등 자율적으로 축제 구조조정에 나서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음

2

정부 및 지자체, 자율적 축제 육성을 위한 구조조정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지원제한 규정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등급(대한민국 대표 축제,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유망 축제)별로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지원제한 규정을 도입하였음
- 국비지원 기간을 대표 축제 3년, 최우수 축제와 우수 축제 그리고 유망 축제는 동일 등급에서 3회까지, 통합해서 7회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승급을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울산시, 축제 현장평가로 미비한 점은 단계적으로 보완

- 울산시는 2011년 4월 ‘2011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후보로 선정했던 5개 축제¹⁾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미비한 점은 단계적으로 보완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경쟁력이 없을 경우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임
- 축제평가단은 이들 축제기간 내내 현장에서 대표 프로그램 완성도, 관광객 유입 가능성, 다른 축제와 차별성, 지역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성, 체류성, 편의시설 운영의 적정성, 기획 및 홍보의 전문성, 주관 행정기관 지원과 육성 의지, 주민 호응도, 재정자립도, 경제적 파급효과, 관광객 수와 재방문 가능성 등을 측정함

□ 전라북도, 14개 지역축제에 대해 구조조정 실시

- 전라북도는 2011년 7월 소모성·행사성 지역축제를 퇴출·통폐합하고, 유망한 축제를 지역별 대표축제로 전환해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14개 시·군의 소규모 축제 14개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음
- 한편 도는 전주대 산업협력단을 축제 평가기관으로 선정한 뒤 14개 시·군의 대표 축제 평가 결과에 따라 2012년부터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우수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추천할 계획임
- 또한 지역 특성을 살려 주민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축제만 엄선해 집중 육성을 위해 ‘3진 아웃제’를 도입해 3년간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경쟁력 없는 축제는 퇴출시킬 방침임

< 축제 구조조정 내역 >

폐지	통폐합	신설
무주-구천동 철쭉제	고창-북분자축제·수박축제·장어축제	무주-구천동계곡축제
완주-대운산 축제	임실-치즈페스티벌·의견문화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부안-불꽃축제	군산-수산물축제·벚꽃예술제	부산-마실축제
군산-쌀문화축제	임실-소송사선문화제·고추축제·산머루축제	-

자료: 서울신문(www.seoul.co.kr)

1) 5개 축제는 처용문화제와 외고산옹기축제, 쇠부리축제, 고래축제, 조선해양축제 등임

□ 강원도, 총86개 축제 중 경쟁력 있는 18개 축제만 육성 지원

- 강원도는 2011년 10월 도내 18개 시·군에서 연중 개최되고 있는 크고 작은 축제 총 86개 중 18개 이내의 경쟁력 있는 축제만 육성 지원 계획을 발표함
- 2011년 도는 내년부터 도내18개 시·군에서 우수축제 추천을 받아 축제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대표, 우수, 예비 등 등급별로 나눠 지원키로 함
 - 1시·군 2개 이상의 축제가 순위내 포함될 경우 1개만 지원하고 순위내 들지 못한 시·군은 지원하지 않을 방침임
- 강원도는 도정역점 시책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틀 마련을 위해 우수축제로 지정되는 축제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

□ 경상남도, 2012년 우수 2개, 육성 4개, 일반 14개 축제 선정

- 경상남도는 축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문화관광축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2년도 우수축제 2개, 육성축제 4개, 일반축제 14개를 선정함
 - 우수축제 : 창원시 진해군항제, 의령군 의병제전 등
 - 육성축제 : 진주 개천예술제, 김해 가야문화축제, 하동군 토지문학제, 남해군 보물섬마늘축제 등
 - 일반축제 : 창원 페스티벌, 마산 만날제, 통영 통영예술제, 사천 와룡문화제, 밀양 아리랑대축제, 거제 거제섬꽃축제, 양산 삼량문화축전, 함안 아라제, 창녕 비사벌문화예술제, 고성 소가야문화제, 산청 지리산평화제, 함양 물레방아축제, 거창 아림예술제, 합천 대야문화제 등
- 경상남도는 18개 시·군의 20개 축제를 대상으로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선정하였으며, 우수축제에는 5천만 원, 육성축제에는 3천2백만 원, 일반축제에는 5백만 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임

□ 한국방문의해위원회, 6대 특별이벤트(지역축제) 선정

-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진해군항제를 6대 특별이벤트²⁾로 선정해 군항제 기간동안 2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로 축제의 세계화를 도모할 계획임
 - 진해군항제는 올해로 제50회를 맞이하며, CNN은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곳’으로 선정한바 있음
- 추진위는 연초에 이미 중국·홍콩·대만·일본 여행업 관계자들의 팸투어를 진행했고, 국내외 우수 여행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
- 창원시와 여행사들은 군항제 기간 국내외 관광객 팸투어 실시, 군항제 여행상품 개발, 대규모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협력하여 한류문화 체험 프로그램, 코리아 웰빙푸드 체험전, 한류문화 콘서트, 군악 의장대 페스티벌 등 외국 관광객을 겨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함

□ 여행업계, 테마축제 상품 발굴

- 국내여행 수요에 맞춰 여행사마다 다양한 테마여행을 발굴하고 지역축제 및 지자체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여행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그중 코레일투어는 3월 6일 전국의 유명 봄꽃축제를 찾아 떠나는 특별열차 상품을 기획함
 - 진해 벚꽃축제, 구례 산수유축제, 광양 매화축제, 쌍계사 벚꽃, 마이산 벚꽃, 해인사 벚꽃, 내소사 벚꽃, 경주보문단지 벚꽃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별로 개화시기에 맞춰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운영될 예정임

2) 6대 특별이벤트는 한류드림페스티벌(경주, 9월21~23일), 한국음식관광축제(전주, 10월18일~22일), 부산세계불꽃축제(부산, 10월26일~27일), 제주올레걷기축제(제주, 10월31일~11월3일), 국제생명·평화축제(춘천, 5월19~21일), 진해군항제(진해, 4월1일~10일) 등임

- 누림여행사에서 ‘쌍계사 10리 벚꽃축제와 화개장터 당일여행’ 상품을 판매 중이며,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벚꽃 명소인 쌍계사와 화개장터를 찾을 예정임
- 투어익스프레스(tourexpress)는 봄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여행 상품 3가지(매화, 벚꽃 등)를 선정하여 이벤트를 진행중임
 - 첫 번째 상품으로는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매화꽃 여행은 섬진강 청매실 농원, 화개장터, 산수유 꽃 여행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상품으로 광양지역의 매화 축제와 연계한 여행상품임
 - 두 번째 상품은 벚꽃으로 유명한 지리산 쌍계사와 화개장터, 구례 산수유꽃 마을 여행이며, 세 번째 상품은 진해 공항제와 벚꽃길을 연계한 상품 등임

□ 소셜커머스와 연계한 축제 상품화

- 소셜커머스인 쿠팡은 지난 3월 봄맞이 여행을 계획중인 고객들에게 전국 각지의 관광지와 벚꽃놀이 축제, 숙박시설 및 주변 맛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획전을 진행함
- 쿠팡은 꽃샘 추위 이후 본격적인 봄 나들이를 준비 중인 고객들을 위해 벚꽃축제, 쭈꾸미축제 등 전국 유명 꽃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딜을 기획함